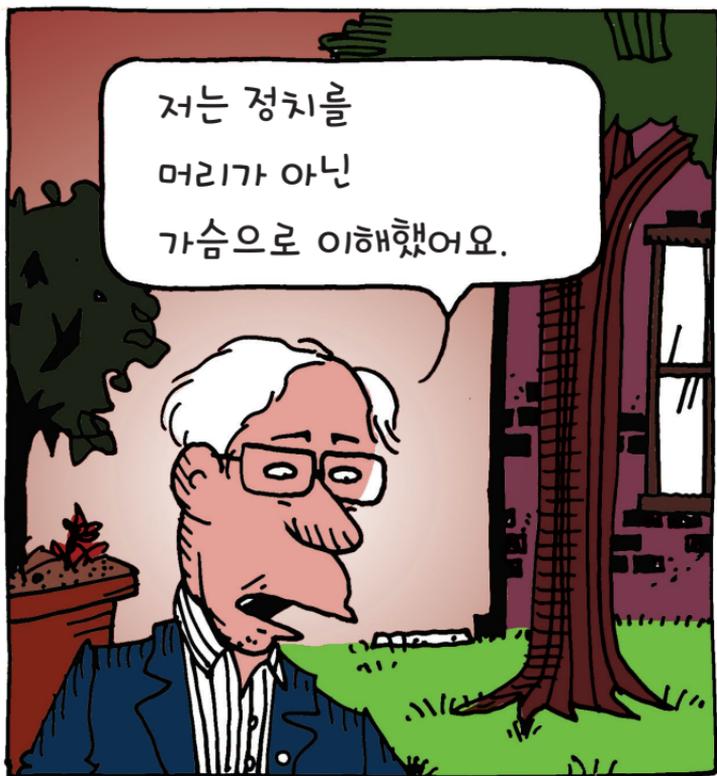




혁명의 자식

Child of Revolution



버니 샌더스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그가 1960년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버니는 히피*는 아니었다.

*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기성 제도와 관습을 부정하고 자유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

버니의 청년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결정적 시기였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반세기 동안 정치와 문화를 지배했다.



버니는 베이비붐 하위문화의 일원으로 젊고 용모 단정한 활동가이자 지식인이었다.

‘반문화(counterculture)’의 영향은 거부할 수 없었고, 특히 이성관계에서 그랬다. 하지만 버니는 세상에 무관심하기보다 세상을 바꾸려 했다.



버니 샌더스는 1941년 9월 8일 뉴욕
브룩클린에서 엘리와 도로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둘 다 유대인으로 다소
진보적이었지만 정치에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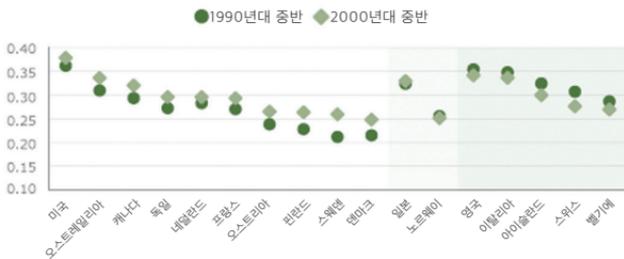


부모님은
민주당에 표를 줬지만
실제로 정치에 관여하진
않았어요.

오늘날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버니는 스칸디나비아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 정책과 더 평등한 소득 분배 방식을 미국이 도입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말 소득불평등

(왼쪽 수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로 0은 완전 평등, 1은 불평등한 상태다)



출처 : 캐나다 컨퍼런스 보드



WATCH THAT KICK: Bernie Sanders leads the field in the mile run as Lou Howort trails, a close second.

버니는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지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며 어릴 때부터 자신만의 정치 성향을 갖게 되었다.

버니의 아버지 엘리 샌더스는 1917년 폴란드에서 이주해 왔다. 버니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불공정할 수 있는지 직접 지켜보았다. 엘리는 20세기 초 혼자 유럽에서 빠져나왔지만, 다른 친척들은 홀로코스트에 희생되었다.



엘리는 가난했다. 열심히 일해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없었다. 같은 시기에 이민온 다른 사람은 친척의 도움에 기대 수 있었지만, 엘리는 돈을 빌릴 사람도 머물 곳도 없었다.

버니는 브루클린과 롱아일랜드를 오가며 페인트
영업을 한 아버지를 보면서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되는 애처로운
주인공 윌리 로먼을 떠올렸다.

로먼은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뒤
해고되고 돈벌이가 시원찮아 평생 저축을 하지
못한다.



엘리 샌더스는 재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사회주의자'였던 버니의 할아버지를
'괴짜'라고 생각했다.

버니의 어머니 도로시 샌더스는 뉴욕 출신으로
일곱 명의 자매 중 하나였다. 도로시는 자주
아팠다. 어릴 때 앓았던 류마티스성 열
때문에 몸이 허약했다. 버니는 도로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어머니는 브롱크스에서 자랐어요.
아주 미인이셨지만 심장질환을
달고 사셨어요.”



“어머니는 온화한 성격은 아니셨어요. 특히라면 저와 형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유명한 가족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으로 달걀 요리를 만들었는데, 형이 안 먹는다고 하자 어머니가 형 머리 위로 달걀을 쏟아부으셨어요.”



버니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 “친밀한 관계였죠. 아버지는 정말 다정했고 어머니에 비해 사교적인 분이셨어요. 사람을 좋아했죠. 세일즈맨이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버니의 부모는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돈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전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기간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가 세일즈맨이다보니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었습시다.”



버니 가족은 브루클린 플랫부시 지역 킹스 하이웨이 모퉁이에 있는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다.

오늘날 고급 주택가가 된 뉴욕 시에도 현관문에 낙서 흔적이 남아 있다. 플랫부시는 당시 유대인 동네였지만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전히 부자 동네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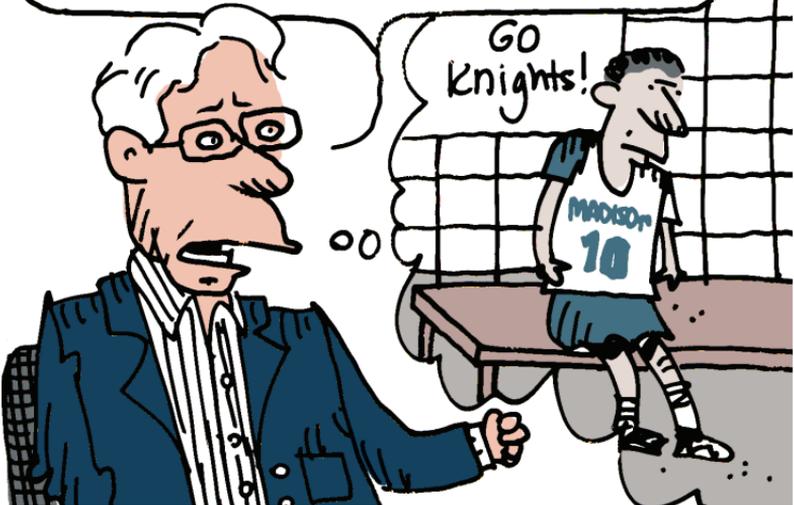
1955년부터 브루클린의 미드우드 구역에 있는 P.S. 197이라는 이름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버니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

“농구를 잘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경쟁이 치열했던 브루클린 지역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전 운동 스타였어요.”



버니는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항상
잘나간 것만은 아니었다.

고교 2군까지 갔지만 중간에 도태되었고,
그 트라우마가 컸어요. 10번 유니폼을
입었죠. 60년 전 일이네요. 제가 기억
못하리라 생각하시나요?
이젠 아무 의미 없죠!
개자식, 나를 자르다니!



버니는 보이с카웃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다. 버니의 어머니는 어린이 단원의 분대 여성 지도자로, 군대로 따지면 장군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에 맡기도 했다.

“보이с카웃 캠프에 몇 년 참여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성공해서 플랫폼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버니는 제임스 매디슨 고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학생 수가 5,000명이나 되는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이 관심을 받기는 어려웠다. 학교의 규모는 버니를 비롯한 우등생의 학구열을 자극했다.



래리 하이트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
1959년 졸업반

주변 환경은 버니의 정치 성향을 강화했다.
 고등학교 동창생인 월터 블락 로올라대학 경제학
 교수는 당시 매카시즘이 활개치던 시절이었지만
 플랫폼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분위기였다고 기억한다.



샌더스는
 브루클린 다저스*에
 열광했다.

"타운 2할 8푼 52리의
 길 호지스 선수가 세 차례
 타석에서 한 번 출루하면
 타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하면서 수학 공부를 했죠."



*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전신

버니는 어린 시절 운동에 몰두했다. 버니가 속한 농구 팀은 뉴욕 주 챔피언전에서 우승했다. 브루클린 자치구에서 가장 빠른 장거리 달리기 선수 중 하나였던 버니는 육상과 크로스 컨트리 팀의 주장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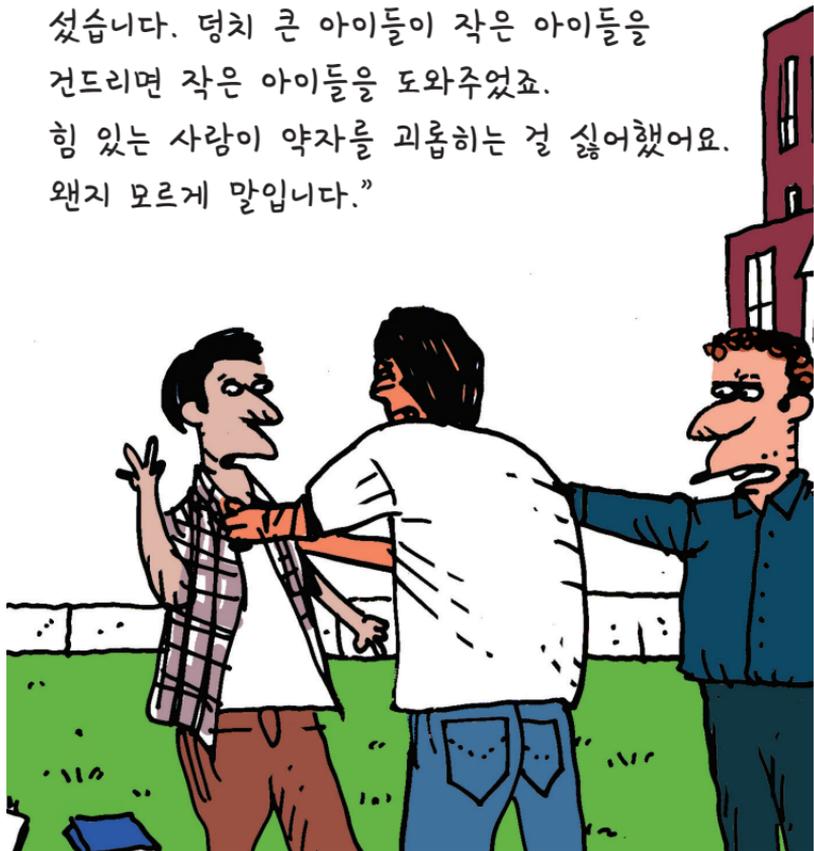
“전 지구력이 좋았어요. 장거리를 잘 뛰었죠. 슈퍼스타는 아니어도 1.6킬로미터 달리기에서 3등을 했고,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우승도 많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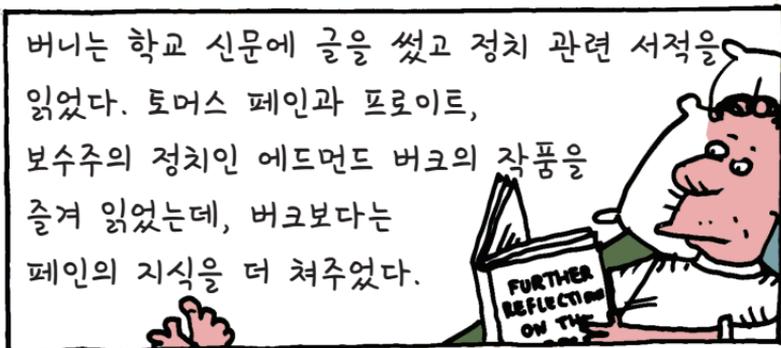
“항상 구기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야구, 농구, 축구, 스틱볼 같은 운동 말입니다.
그런 운동밖에 안 했어요.”

버니는 강한 신체 덕분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다.

“어렸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약한 아이들 편에 섰습니다. 덩치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건드리면 작은 아이들을 도와주었죠.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걸 싫어했어요. 왠지 모르게 말입니다.”



버니는 학교 신문에 글을 썼고 정치 관련 서적을 읽었다. 토머스 페인과 프로이트, 보수주의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의 작품을 즐겨 읽었는데, 버크보다는 페인의 지식을 더 쳐주었다.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떨어진 일은 버니의 첫 선거운동 실패였다.



그래도 완패는 아니었다. 학급 반장을 통해 당선자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형 래리 샌더스든 말한다. “당선된 학생은 결국 한국전쟁 고아 돕기 기금 모금이라는 버니의 공약을 받아들였습니다.”